

소변 자주 마려울 때

평상시보다 수분을 많이 섭취했다거나 정신적으로 긴장한 일도 없는데 소변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으면서 횡수가 잦아질 때는 당뇨병, 요붕증(尿崩症), 수신증 등의 병을 의심할 수 있다. 피로감이 이어지고 갈증이 있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 반대로 소변이 잘 안 나오면서 횡수가 늘어날 때는 방광염, 요도염, 요도결석,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만성적으로 소변을 자주 본다거나 금방 소변을 보았는데도 또다시 소변을 보고 싶어지는 증세가 계속되면 검사를 받는다.

삼주뿌리 달인 물

삼주는 국화과의 식물로 뿌리에 수분을 배출하는 작용이 있어서 옛날부터 이뇨제나 의류의 습기 방지 등에 이용되어온 약초이다.

한방에서는 이 뿌리를 말려서 소변을 자주 보는 증세에 사용했다.

또한 위를 튼튼하게 하고 정상 작용이 있으므로, 위가 약하고 체력이 없는 사람의 빈뇨에 효과가 있다.

말린 삼주뿌리 35g에 물 2컵을 부어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달여 하루 3회로 나누어

따뜻하게 마시면 효과가 있다.

은행술

은행에는 방광괄약근을 긴장시키서 소변을 자주 보는 증세를 낮게 해 주는 작용이 있다. 소변이 잦거나 야뇨증인 사람은 은행술을 만들어 마시든지 은행을 구워서 하루에 7알씩 먹으면 증세를 호전시킨다. 매일 굵기가 번거로운 때는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놓고 하루에 10g씩 먹도록 한다.

작약뿌리 달인 물

작약은 뿌리에 약효가 있다. 잦은 소변을 비롯해서 정신을 안

작약이나 삼주뿌리 달여 마신다

정시키는 작용이 있으므로 정신적으로 긴장이 잦아 화장실을 자주 가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또한, 출산 후의 피로회복이나 월경불순, 냉증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인병의 약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작약뿌리 10g에 생강3쪽을 넣고 물2컵을 부어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달인다. 이것을 하루에 3회로 나누어서 공복에 마시면 좋다.

만들어 봅시다



껍질을 벗긴 은행 5개를 1/2컵의 소주에 담갔다가 마신다.

「지구자 엑기스」 한방 숙취해소 음료

숙취해소 음료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생약재인 지구자를 진액화한 한방 숙취해소 음료가 등장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소맥물산이 내놓은 「지구자 엑기스」는 8백도 이상의 수증기 열처리를 통해 지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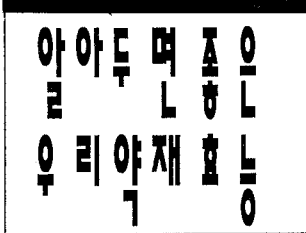
나무의 성분을 99% 추출 엑기스화 한 것으로, 최근 시판에 나섰다.

96 대한민국 꽃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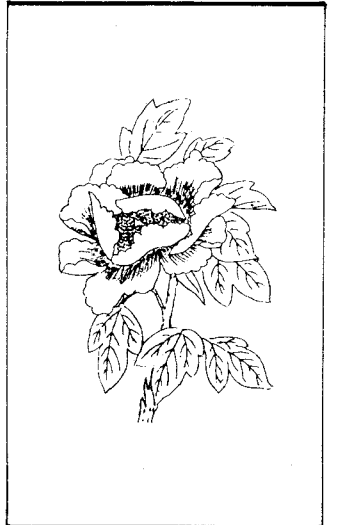
농림수산부가 주최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주관하는 96 대한민국 꽃 박람회가 5월

31일부터 6월9일까지 10일동안 한국종합전시장에서 펼쳐진다.

국민정서 순화와 건전 소비 문화 조성으로 꽃 수요 저변확대를 위해 「우리의 꽃, 세계의 꽃」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꽃 박람회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국내 최대규모의 환경축제로 꽃과 함께 즐기고 배우는 꽃 축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목단



원래 붉은 색이었으나 예전부터 품질개량이 꾸준히 이루어져 지금은 종류만도 수백종에 이르고 꽃의 색도 하양, 빨강, 자홍, 흑자, 노랑, 보라 등 여러가지다. 이 가운데 붉은 꽃의 효과가 제일 낫다.

치질이 있을 때 그늘에 말려둔 붉은 목단꽃을 끓인 다음, 그 물로 좌욕을 좌주 하면 증세가 가벼워진다. 기름진 음식이나 술을 지나치게 즐기고 운동을 게을리 해서 생긴 치질에 효과가 좋아 괴로운 통증이 많

목단은 작약뿌리에 목단줄기를 접붙인 것이 많은데 이것은 약으로 쓰는 목단이 아니라 목작약이라 하는 것이므로 구별해서 써야 한다.

목단뿌리의 껍질 속에 들어있는 파에놀이라는 성분은 물에 잘 녹지 않으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알레르기를 개선하는 작용을 한다.

알레르기 개선

비염치료에 효과

이 가신다 이와함께 목단꽃과 연꽃을 함께 달여 두고, 그 물을 복용하기도 하면 훨씬 잘 낫는다.

약으로는 적갈색 꽃이 피는 한 겹짜리 목단을 쓴다. 약으로 쓰는 부분은 뿌리의 껍질이다. 종자가 익는 10월에 뿌리를 캐내어 적당한 길이로 자른 다음 두들겨서 목질 부분을 없애고 남은 껍질을 햇볕에 잘 말렸다 쓰면 되다.

시중에서 원예용으로 파는

또 간울화왕증에도 약효가 있다. 간울화왕증이란 오후에 특히 열이 심하게 나고, 땀이 많이 흐르며, 머리가 아프고, 눈이 깔끄러우면서 충혈되고, 뺨이 붉어지며, 월경이 순조롭지 못한 증세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병증이다.

이런 증세가 있을 때는 목단과 치자를 6그램씩 넣고 물 두 컵을 부은 뒤 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달여서 마시면 증세가 가라앉는다.

중앙 회원 가입 안내

국산한약재는 조상의 열이 담겨있는 소중한 전통의약입니다.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앙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농촌지도기관, 영농법인, 작목반, 생약분야단체, 학계, 제약 및 식품회사, 우리생약에 관해 관심있는 모든분

혜택

- 1) 생약재배에 관한 기술지도
- 2) 생약계약재배 및 수매알선
- 3) 입산채취증 발급
- 4) 생약의 수출입 알선
- 5) 생약분야 정보제공
- 6) 한국생약보(시세표 포함) 제공

구비서류

- 1) 가입서 양식(본부에 비치)
- 2) 주민등록등본 1통
- 3) 증명사진 2매
- 4) 회비 : • 개인 : 월 3,000원×12개월 = 36,000원
가입비 10,000원 합계 46,000원
• 단체 : 월 10,000원×12개월 = 120,000원
가입비 10,000원 합계 130,000원

가입문의 : 협회사무국 전화(02) 967-8133